

지역사회 간판 한글화 한글 중심 인재 키운다

익산시(시장 정현율)와 (사)한글세계화문화재단(총재 심의두)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경 익산시청 2층 시정실에서 한글세계화보급을 통해 익산시 발전에 상호 협력 도모하고자 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시와 (사)한글세계화재단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글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자 한 것.

익산시는 한글의 보급·활용을 통해 (사)한글세계화문화재단의 지역사회발전 및 세계화를 위한 활동을 이끌고 (사)한글세계화문화재단은 회원들의 한글세계화운동을 통해 익산시의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간판 한글화’와 한글을 중심한 인재육성에 협력한다.

또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 협의해 정한다.

한글세계화재단은 현재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20여만의 회원이 가입돼 한글의 세계화를 하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심의두 총재는 “지금 지구촌의 심장부 뉴욕 금강산 회관에서 한글의 꽃이 핀다”며 “47년 전 69년도에 뉴욕 리퍼폴 고등학교에서 한글이 50년 뒤에는 세계어가 반드시 된다고 선언했고 본인은 예언가에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한글보다 더 우수한 문자가 없기에 한글이 세계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리고 47년 전에도 미국 뉴욕에서 미학자들 6명과 한글이 좋냐? 영어가 좋냐? 토론대회를 한적도 있다. 주어진 시간은 각자 10분이었지만 통역이 있어 앞에서 6명이 말하는데 만 120분이 걸렸다. 그분들 주장은 거의 다 영어는 필기체, 활자체, 소문자, 대문자로 되어 있고 고유명사나 대명사 등은 대문자로 쓴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반면에 앞으로의 사회는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스피드시대가 되어 가는 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심 총재는 “예를 들자면 발음에서 영어는 A자를 써놓고 에이·어·아·오 등 4가지 이상을 발음하지만 한글은 ‘아’면 ‘아’ 이상도 이



심의두 총재가 말하는 한글세계화의 당위성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영어처럼 활자체 등 쓰지 않게 돼 목소리대로 표현하는 것이 장점”



해도 필요없고 ‘아’로 꼭 떨어지고 쓰기에서도 한글은 ‘오’면 ‘오’로 끝나는데 영어는 필기체 활자체 정자 초서로 되어 있어 4배가 낫다. 도합 8배가 낫으면 어떻게 한글을 따라 오겠느냐? 고 하자 미국 학자들도 박수를 쳤다”고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글세계화문화재단은 전 세계인이 한국에 조공을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한글세계화로 한국을 일등국가로 만들어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재단은 ▲우수한 한글로 한국의 혼과 다문화인들에게 한글무료교육을 통해 한글을 전 세계로 전파 ▲국내외의 간판부터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한글로 교체 ▲목적 달성을 위해 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전국적으로 조직 ▲상호정보교환으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 전 세계인이 공유, 더불어 사는 밝은 세상 조성 ▲건강교육으로 120세까지 장수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기 ▲전 회원이 애국자란 사명감으로 회비를 납부해 외국인인 한글을 배우러 찾아오는 한글 국제학교를 설립 ▲100만명 가입목표로 달려가 너와 나 하나되어 한사모(한국과 한글사랑모임)에 가입해 일등국가 만들기 등의 실천방향을 설정하고 경주해 나가면 1등 국가가 만들어지고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심의두 총재 Profile ◀◀



- 1935년-원주군 태생
- 1964년-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64년-화산중등학교원인가
- 1967년-화산고등공민학교인가 교장
- 1969년-한글세계화본부창설 총재
- 1969년-화산중학교 설립인가 교장
- 2016년-대전예지중고교장 취임
- 2016년-이탈리아 가스파레 스포네티 국립 음악원 명예 예술경영학 박사
- 2018년-(사)한글세계화문화재단승인 이사장
- 현재-원주 자율화산중학교 이사장 (사)한글세계화문화재단 총재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